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은기수**, 이윤석***

이 연구는 2003년에 실시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가족모듈과 국제사회조사기구(ISSP)의 2002년 가족모듈을 이용해 한국의 가족가치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 분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여러 가치와 태도가 급변하고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그 결과 세대간의 가치 및 태도의 차이가 크고, 이는 사회내 세대간 갈등의 뿌리라고도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은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이런 시점에서 한국의 여러 가치 중 가족가치의 영역에서 세대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 국제적인 수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세대간 가족가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지를 kurtosis라는 지표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결혼, 동거, 이혼 및 부부의 성역할에 관한 가치 및 태도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인의 가족가치는 가톨릭이 지배적인 필리핀의 가족가치와 비슷할 정도로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치관의 변화는 경제발전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국은 한국보다 경제발전 정도가 크게 뒤져 있으면서 보수적인 가족가치관이 지배적인 필리핀과 가족가치의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간 갈등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족가치의 세대간 차이가 큰지 kurtosis를 이용해 분석해 본 결과,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의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가 있지만, 외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세대간 가치관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고는 보기 힘들다.

핵심용어: 가족가치, 세대간 전승, 세대간 갈등

I. 서론

가족에 관한 여러 가치를 통틀어 가족가치(family value)라고 한다. 즉, 결혼,

* 본 연구는 2003학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2003-074-BM 0007)을 받아 수행되었다.

** 제1저자(교신저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국학전공주임. eunkisoo@snu.ac.kr

*** 공동연구원.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yslee@uos.ac.kr

동거, 이혼, 부부의 성역할분업 및 성 등에 관한 가치나 태도를 총칭하여 가족가치라고 한다. 더 넓은 의미로는 인공임신중절이나 동성애, 동성간의 결혼등에 관한 가치나 태도도 결국 가족에 관한 가치이기 때문에 가족가치를 분석할 때 당연히 포함된다.¹⁾

가치나 태도는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는 영원불변한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가족에 관한 절대적인 가치나 태도라는 것은 없다. 다만 시대와 사회의 성격에 부합하는 가족의 개념이 나타나고 그러한 가족제도에 상응하는 가치와 태도가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일단 만들어진 가족가치나 태도는 단지 한 개인의 가치나 태도를 넘어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규범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규범에 일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보상이 주어지지만 규범을 어기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가족에 관한 규범은 사회성원들의 가족에 관한 여러 행위를 규율하는 효과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시대와 사회가 변화하면 한번 확립된 규범이나 가족제도가 변화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가치나 태도가 먼저 변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가치와 태도가 변화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의 규범이나 가족제도가 미처 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갈등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뜻하지않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다.

그러한 한 예를 간단히 생각해보자.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을 한 여성들이 출산 자녀의 수를 줄이는데도 기인하지만 젊은이들이 결혼을 연기 혹은 포기함에 따라 아예 출산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의 하나는 출산은 꼭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수많은 외국 사회에서는 남녀가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사는 것도 용인되고 동거하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사회의 적법한 구성원으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높다. 그런 사회에서는 출산은 결혼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혼과 출산에 관한 규범이 이미 약해졌고, 법률적으로도 소위 적자와 사생아 사이의 차별을 없앤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부부 사이의 출산만 적법한 출산으로 인정되고 있다. 동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아직도 부정적이며,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며 살면서 출산하는 경우 적법한 출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 이 연구에서는 가치와 태도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결혼하기 힘든 상황에서 결혼도 못하고, 동거도 못하며, 더욱이 출산은 꿈도 꿀 수 없다. 꼭 결혼을 해야만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이냐고 규범에 반하는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국 사회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규범은 아직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규범과 다른 가치나 태도를 가진 젊은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들이 규범을 어기고 결혼하지 않은 채 출산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적다.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결혼과 출산 규범 앞에서 젊은이들은 결국 결혼을 못하면 출산은 자연히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의 저출산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최근의 쟁점은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극심하다는 인식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다. 2002년 말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2004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둘러싸고 방송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마치 한국 사회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 가치관이 전혀 다르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가 가치관이 다른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대립의 결과로 귀결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연령층에 따른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혹은 정당의 선호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진보 혹은 보수와 같은 가치관의 차이에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는 것처럼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극명하게 구분이 되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가치관의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규명도 없이 이미 한국 사회는 세대간에 가치관이 양극화되고 있는 것처럼 간주되고 있다.

한 사회에서 가치관이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는 비단 한국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가치나 태도의 대립이 문화전쟁(Culture Wars)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Hunter, 1991; Wolfe, 1998). 디마지오는 이처럼 미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관의 양극화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DiMaggio, Evans and Bryson, 1996).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및 전국선거조사(National Election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사회의 가치관이 양극화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일반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 사회의 가치관은 양극화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태도 사이의 대립은 흔히 정치적인 쟁점으로 비화된다. 예를 들어 가족에 관한 가치인 가족가치는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한다. 1992년 부시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있

었지만 각종 여론 조사에서 지지도가 낮아지자 당시 덴 케일 부대통령은 가족가치를 핵심 선거전략으로 선택했다. 당시 미국 NBC 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었던 “Murphy Brown”이라는 연속극의 주인공인 “Murphy Brown”이 비적출자를 출산하는 장면을 두고 이를 미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가족가치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일어났었다. 지적이고 높은 연봉을 받는 전문 여성 앵커가 아이의 아버지 없이 혼인외 자녀를 출산하는 행위를 덴 케일이 지적하자 이와 연관된 가족에 관한 여러 현상을 두고 보수적인 입장과 진보적인 입장에 따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이나 태도가 양극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선거 때만 되면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의 가치관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논의가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만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도 가치관이 양극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요인보다도 연령에 따라서 즉 세대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도, 특히 선거를 치르면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세대간에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크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치관 가운데 가족가치에 한정해서 세대간 가족가치의 차이를 분석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한국 사회의 가족가치가 세계 여러 사회의 가족가치와 비교하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의 가족가치도 분명히 변화해왔을 텐데 결혼, 동거, 이혼 및 성역할 등에 관한 가족가치는 국제적으로 보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둘째, 한국 사회의 가족가치는 연령에 따라, 즉 세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단지 한국의 자료만을 분석해서 살펴보지 않고, 외국의 경우도 분석해서 한국의 세대간 가족가치의 차이가 외국과 비교해서 현저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셋째, 가치관의 차이가 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든, 아니면 성,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한국 사회에서 가족가치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만약 한국 사회에서 세대간 가치관의 대립이 심하다면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는 각각 서로 대립되는 가치관에 몰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가치관이 양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세대간에 가치관의 차이가 심하여 그 결과 가족가치가 과연 것처럼 양극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기존연구검토

가족가치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인 관심에서 일반인의 관심을 끈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가족가치는 선거기간 동안 가장 논쟁적인 쟁점의 하나가 되어 있다.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미국의 공화당은 1950년대의 미국 가족을 전통가족이라고 규정하면서 1950년대 미국 가족 및 가족가치를 회복하자는 주장을 펼친다. 공화당은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있어 가족가치를 선거캠페인으로 이용함으로써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미국에서 전통가족과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회복하자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가족사회학자는 파피노우(David Popenoe)이다. 파피노우는 부모 및 그들의 자식들로 이루어진 1950년대의 가족을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상정하고, 20세기 후반 이혼의 증가로 가족이 해체되고 있고 이는 미국 사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Popenoe, 1988). 파피노우의 입장은 보수적인 입장으로,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지닌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 대한 반론이 가족사회학자들 사이에 크게 일어났다. 전통가족 및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옹호하는 입장에 대해, 역사적 사실로 보아도 1950년대의 미국 가족은 전통가족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역사에서 특수한 가족이라고 보아야 하며(Coontz, 1992; Skolnick, 1991), 미국의 가족은 하나의 대표적인 가족(The Family)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고(Skolnick and Skolnick, 1997), 남성이 중심이 된 가족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졌다(Thorne, 1992).

파피노우의 주장에 가장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개진한 학자는 스테이시(Judith Stacey)이다. 미국 남가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스테이시는 캘리포니아 지역 가족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탈산업사회의 가족이 어떻게 분해, 변형되고 있으며(Stacey, 1988), 이러한 가족은 결코 비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가족이고 따라서 이들이 지닌 가족가치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하는 가치관이라고 주장한다(Stacey, 1997). 스테이시는 또한 동성애자들의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사회에서 가족에 관해 이루어진 광범위한 연구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혼전성관계가 늘어나면서 미혼모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생애과정을 구성하는가(Furstenberg, Brooks-Gunn and Morgan, 1997)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일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가족가치의 영향을 받아 집에 돌아오면 다시 제2의 노동이 시작된다는 기념비적인 연구(Hochschild, 1989),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가족의 모습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족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이라는 사회제도가 소멸되고 있다고 봐야하는지를 논한 연구(Goldscheider and Waite, 1991) 등 광범위한 연구주제에 기반하여 가족 및 가족가치의 변화에 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시각을 달리하지만, 잉글하트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한 사회의 가치관이 물질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적 가치관으로 이행한다는 명제를 내걸고 방대한 연구를 진행했다(Inglehart, 1990, 1997). 한국에서도 잉글하트의 명제에 따른 연구가 어수영(1997)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가족가치의 변화가 물질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적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반영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발전보다는 환경, 개발보다는 보존,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가족가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사실 분명하지 않다. 어수영(1997)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변화하는 가족관계, 가치변화와 성의 개방이라는 주제를 통해 가족가치의 변화도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증명하는 핵심주제로 부각시키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는 본래 잉글하트가 내걸었던 명제를 증명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일과 노동, 환경, 국가, 경제발전 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가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탈물질적인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문제영역이다.

은기수(2004)는 잉글하트의 명제에 따라 물질적인 가치관과 탈물질적인 가치관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몇 나라의 가치관 비교연구를 통해 잉글하트의 물질적/탈물질적 가치관의 구분이 가치관의 변동과 차이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변수인지를 검토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최근 잉글하트는 베이커와 함께 쓴 글에서 물질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이행하면서도 종교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가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Inglehart and Baker, 2000). 이러한 논의는 모든 사회에서 가치관의 변동이 일률적으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가치관 변동의 양태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를 한국 사회에 적용한다면 물질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적인 가치관으로의 변동이 급속히 이루어

지고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 가족이라는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가치의 영향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어 물질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적인 가치관으로의 이행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은기수(2004)의 연구에서 잉글하트의 물질적/탈물질적 가치관의 구분이 모든 가치관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언제나 성공적이지 않다는 분석과 일치한다.

따라서 가족가치에 관한 비교연구에서는 잉글하트가 중심이 되어 만든 자료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잉글하트의 물질적/탈물질적 가치관을 독립변수로 놓고 분석하기보다는(예컨대 어수영, 1997) 오히려 성,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기존의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최근의 잉글하트의 논지를 받아들여 잉글하트가 택한 종교라는 변수의 유용성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의 정도 및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따라 가족가치에 차이가 나는지도 검토한다. 제2의 인구학적 변천이라는 논의를 내놓은 레스테게(Ron Lesthaeghe)는 그의 최근연구에서 경제적인 성장이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한 사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치면 그 사회의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함으로써 경제상태가 가족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출산력위기를 다룬 논문에 대한 비판에 답을 하면서 호주의 세계적인 인구학자인 콜드웰(Caldwell, 2004: 93)은 제2의 인구학적 변천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경제적, 물질적인 측면의 변화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가족가치가 경제발전 정도 및 여성의 정치적 참여 정도를 고려했을 때 국제적으로는 어떤 수준에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자료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족가치관이 세대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는지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자료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원자료를 이용한다. ISSP 조사는 매년 주제 모듈을 바꾸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해에 동일한 주제 모듈을 조사하도

록 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제인 가족 및 가족가치에 관한 모듈(Family and Gender Roles)은 1994년과 2002년에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994년과 2002년의 가족모듈 자료를 함께 이용한다.

한국은 2003년에 ISSP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1994년과 2002년의 가족 및 성역할 모듈 조사에 참여할 수 없었고 동일한 해에 조사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03년에 조사된 제1회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에서 가족 및 성역할 모듈의 일부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2002년의 ISSP 조사 자료와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연구에서 한국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할 때는 2002년의 ISSP 가족 모듈과 2003년의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수용한 가족 모듈의 조사 내용을 비교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가치의 변화에 관해 심도있는 분석보다는 우선 한국의 가족가치가 외국과 비교해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고, 그 다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우려하는대로 한국 사회내에서 가족가치가 양극화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정당한 고급통계 분석방법보다는 단순한 기술통계를 이용하려고 한다. 먼저 각 국들의 가족가치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응답의 평균값을 구해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의 평균값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 다음 2002년의 외국과 2003년의 한국의 가족가치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평균값의 95% 혹은 99% 신뢰구간을 구해 차이를 살펴본다. 그 다음 각 국별로 연령에 따른 가족가치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회귀계수 값의 95% 신뢰구간을 구해 시각적으로 각국별로 가족가치에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서 연령에 따른 가족가치의 차이가 한국만의 현상인지 아니면 한국 이외의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가치가 양극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Kurtosis라는 통계치를 사용한다(DiMaggio, Evans and Bryson, 1996). 디마지오는 미국에서 가치관이 양극화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른 통계치들과 함께 이 통계치를 사용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응답의 중심과 산포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혹은 분산(variance)을 구한다. 산포도를 나타내주는 분산은 각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통계치이다. 그러나 분산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치관의 양극화, 즉 가치관이 세대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분포(distribution)에 관해서는 알려주지 못한다. 한 사회내에서 가치가 양극화되고 있다면 가치관의 분포가 쌍봉을 이루는 분포(bimodality)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분산은 분포가 하나의 봉우리를 이루고 있거나 쌍봉을 이루거나

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산출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가치관 분포의 양극화, 통계적으로는 쌍봉분포에 가까운 분포의 여부를 판별해주는 통계치로 분산은 적절한 통계치가 아니다. 대신 kurtosis는 쌍봉 분포의 여부를 판별할 때 유용한 통계치이다. kurtosis는 통상적으로 엄밀한 통계치로 이용되기 보다는 진단용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치관의 양극화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하려고 한다. kurtosis(k)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해진다.

$$k = \{[(X - m)^4 \div N] / s^4\} - 3$$

여기서 m은 평균값이고, s는 표준편차이다. 분포가 하나의 봉우리를 이루고 있으면 kurtosis의 값은 양의 값을 갖는다. 그러나 정규분포보다 옆으로 퍼지는 분포가 되면 음의 값을 갖게 된다. 봉우리도 없고 모든 값이 동일한 비율을 갖는 분포가 이루어지면 kurtosis 값은 -1.3이 된다. 분포가 완전히 양극단으로 나누어지면 kurtosis는 -2의 값을 갖게 된다.

분석방법 가운데 마지막 분석방법은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이다. 대응분석은 가치관의 변화에 경제발전정도와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경제발전정도와 여성의 정치적 참여정도와 가족가치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대응분석의 결과를 본격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대응분석의 결과 변수들간의 관계에서 각국의 가족가치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정도에서 활용하고 있다.

가족가치 자체가 매우 넓은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가족가치의 모든 영역을 다 다루지는 않는다. 대신 이 연구에서는 가족가치 가운데 결혼, 동거, 이혼 및 가족내 성역할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설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설문들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서 살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 택한 분석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결혼, 동거, 이혼 및 가족내 성역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이용하고 있다.

-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 (Married people are generally happier than unmarried people.)
- 동거에 대한 태도: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It is all right for a couple to live together without intending to get married.)

- 이혼에 대한 태도: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Divorce is usually the best solution when a couple can't seem to work out their marriage problems.)
- 가족내 성역할: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A man's job is to earn money; a woman's job is to look after the home and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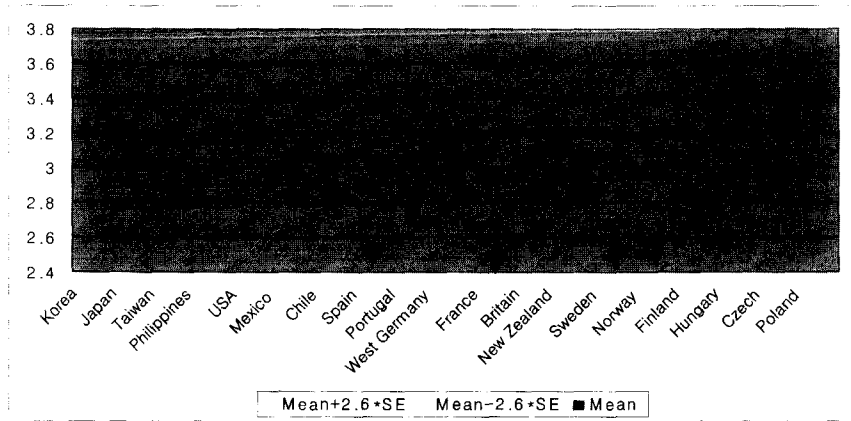
이상의 네 진술이 각각 결혼, 동거, 이혼 및 성역할을 대표하는 진술로 가정하고, 이 진술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각국의 가족가치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 진술은 매우 찬성(5), 찬성(4), 그저 그렇다(3), 반대(2), 매우 반대(1) 및 고를 수 없다(Can't choose) 등으로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다. 고를 수 없다는 응답 자체도 매우 유의미한 응답이고 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디마지오의 분석에서도 그랬듯이 고를 수 없다는 응답은 제외하고 5점 척도에 대한 응답만 분석하였다.

IV. 한국의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 2002 ISSP와 2003 KGSS

그러면 한국의 가족가치는 국제적으로 분석해보면 어느 위치에 놓여있을까. 이 소절에서는 2002년의 ISSP 자료와 2003 KGSS 자료를 이용해서 한국의 가족가치의 위치를 비교분석한다.

1. 결혼에 관한 가치의 국제비교

다음 <그림 1>은 결혼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의 99% 신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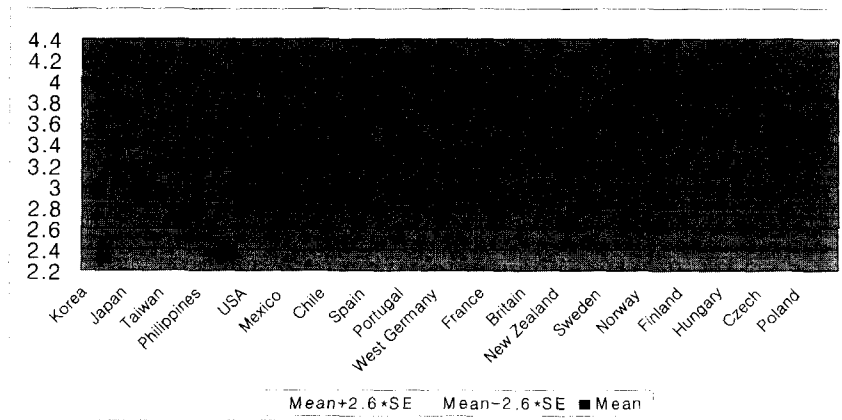
<그림 1> 결혼에 관한 가치의 국제비교

<그림 1>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은 한국인의 결혼에 관한 가치가 필리핀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전통적이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진술에 대한 평균값이 한국과 필리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한국과 필리핀 다음으로는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에 속한 국가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가 비교적 전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가 여전히 비교적 전통적인 가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필리핀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미국보다도 덜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스페인은 가족 및 가족주의가 강한 남부 유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태도가 매우 탈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스페인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같은 수준으로 매우 탈전통적이다.

<그림 1>을 통해서 한국은 결혼에 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매우 강한 국가이고, 결혼가치관의 수준이 필리핀과 동렬에서 파악될 정도로 전통적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못 충격적이다. 분석시기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은 \$10,000에 달하고 있고, 필리핀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000에도 못 미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격차가 있고, 가치관의 변화에 경제성장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결혼 가치관이 필리핀의 결혼가치관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점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2. 동거에 관한 가치의 국제비교

그러면 동거에 관해서는 한국의 가치관이 국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까. 다음 <그림 2>는 동거에 관한 태도의 국제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동거에 관한 가치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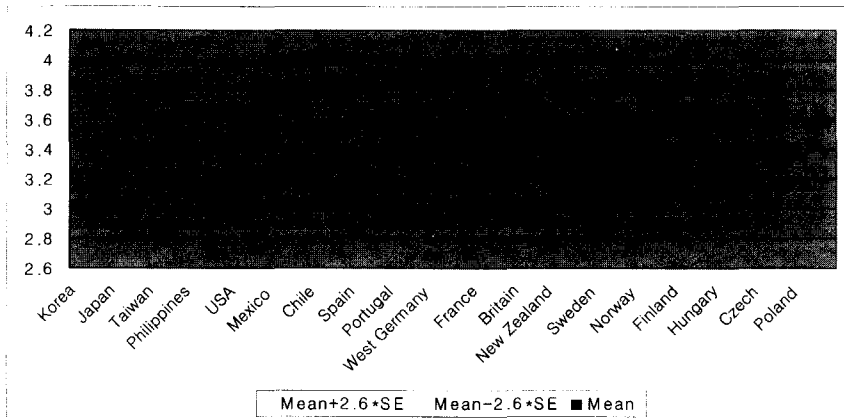
동거에 관한 한국은 필리핀과 함께 역시 세계적으로 매우 강한 전통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나 대만 등과도 구별될 정도로 동거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결혼에 대해 매우 전통적인 태도를 보였던 필리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거를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나 필리핀, 대만보다는 높은 용인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 필리핀,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동거에 대한 용인도가 다른 국가들보다 낮다. 반면에 스웨덴, 프랑스 등에서는 동거에 찬성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나머지 북, 서, 남부 유럽국가에서도 동거는 이미 매우 높은 비율로 용인되고 있다. 미국, 멕시코, 칠레 등의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동거에 대해 낮은 지지도가 나타날 뿐이다. 헝가리도 동유럽 국가이지만 동거에 대해서는 노르웨이, 핀란드, 서독, 포르투갈 등과 같은 정도로 찬성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에 대한 태도가 매우 전통적이었던 것과 상통하게 동거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은 매우 전통적인 태도가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놀랄 수 밖에 없는 사실은 동거에 대한 태도도 필리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통적이라

는 사실이다.

3. 이혼에 관한 가치의 국제비교

세계적으로 이혼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이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이혼은 금기시되지 않고, 선택의 문제로 바뀌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이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을까.



〈그림 3〉 이혼에 관한 가치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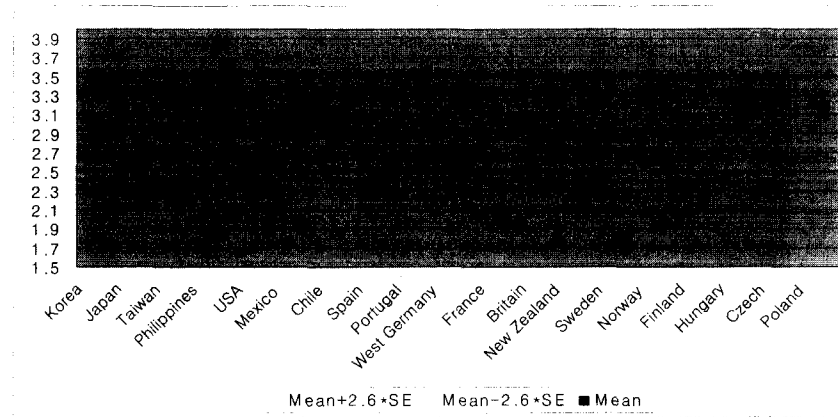
이혼에 관한 아시아 국가들은 비슷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혼이 합법화 되어 있지 않은 필리핀이 이혼에 관한 가치도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준의 전통적인 태도를 보인다. 비 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는 미국이 이혼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다.

반면에 멕시코 및 이혼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칠레 등 남미의 국가,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 및 독일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혼을 받아들이고 있다.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서도 부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경우 이혼은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대부분의 북유럽 및 서유럽 국가에서도 이혼에 대해 비슷한 정도로 용인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뉴질랜드가 유럽국가들에 비해서 이

혼에 관해 약간 낮은 용인도를 보이고 있다.

4. 가족내 성역할에 관한 가치의 국제비교

가족내 성역할에 관해서 한국의 가족가치는 국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다음 <그림 4>는 가족내 성역할에 관한 가치의 국제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가족내 성역할에 관한 가치의 국제비교

결혼, 동거, 이혼 등의 가족가치에 비해서 가족내 성역할에 관해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전통적인 태도를 지닌 국가라고는 말할 수 없다.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성역할의 가치를 지닌 국가는 필리핀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필리핀에서는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가사와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을 강하게 지키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필리핀 다음으로는 대만에서 전통적인 가족내 성역할 태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은 한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난다. 분석 대상국 중 한국보다도 가족내 성역할에 관해 더 전통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는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 및 멕시코, 칠레 등의 남미 국가들이다.

분석 대상국 중 스웨덴의 경우 전통적인 가족내 성역할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은 노르웨이, 독일, 핀란드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외의 유럽 국가 및 미국에서도 전통적인 성역할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이 소절에서는 한국의 가족가치가 외국의 가족가치와 비교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동거, 이혼 및 가족내 성역할 등의 가족가치에 관한 한국보다 경제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는 필리핀과 동일한 수준에 있다고 할 정도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도 한국은 필리핀과 비슷하거나 약간 덜 전통적일뿐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가치관의 변동을 가장 극심하게 겪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Inglehart, 1997: 146-147), 가족가치의 측면에서는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V. 연령에 따른 가족가치의 차이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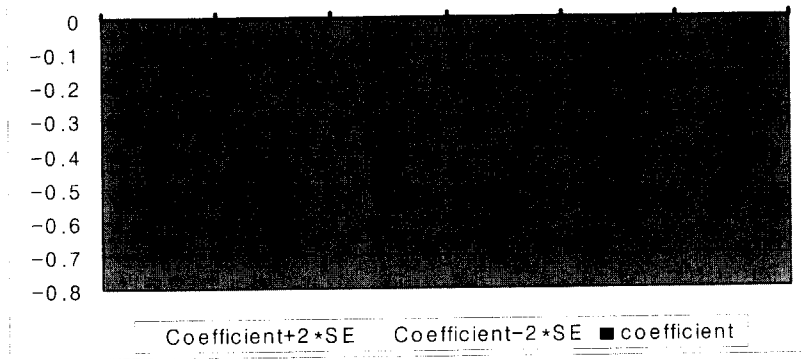
2002 ISSP와 2003 KGSS

이제 이 연구의 핵심 연구목적 가운데 하나인 연령별 혹은 세대별로 가족가치에 차이가 있는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연령별 혹은 세대별 가족가치의 차이가 더 심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결혼에 관한 가치의 연령별 차이

한국 사회에서 세대별로 가치가 양극화 되어 있다면 젊은 세대와 나이는 세대 사이에 가치관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 내에 가치가 양극화되어 있는지를 살피기에 앞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섯 나라에서 연령에 따른 가족가치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그림 5>는 연령에 따른 가족가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²⁾

2) 이하의 분석은 성을 통제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연령 회귀계수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내주고 있다. 45세 이상이 준거범주로 설정되었고 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계수는 15세이상 34세까지 연령층의 회귀계수이다. 회귀분석에서 35세부터 44세까지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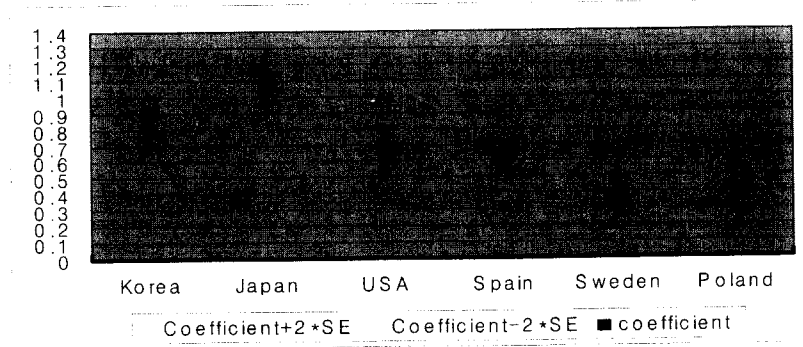


<그림 5> 결혼에 관한 가치의 연령별 차이

<그림 5>는 한국, 일본, 미국,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 등 6개국에서 결혼에 관한 가치관이 젊은 연령층과 나이 든 연령층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위에 제시된 그림은 분석 대상인 6개국에서 모두 나이 든 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는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인 혹은 탈전통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경우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한다 해도 한국에서만 유달리 세대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분석 대상 6개국 모두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 동거에 관한 가치의 연령별 차이

이번에는 동거에 대한 가치에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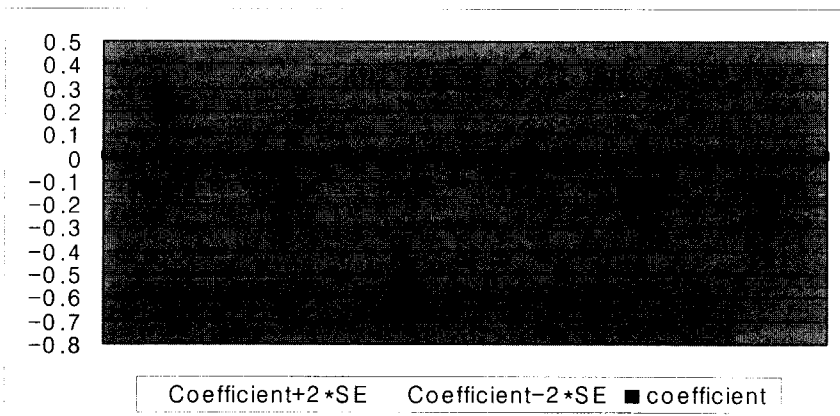
<그림 6> 동거에 관한 가치의 연령별 차이

동거에 관해서도 분석 대상 6개국에서 연령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젊은 연령층과 나이든 연령층 사이에 동거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일본 다음으로 젊은 연령층과 나이든 연령층 사이에 동거에 대한 태도에 있어 차이가 큰 나라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동거에 대한 태도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한국에서 연령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거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유럽 사회에서도 역시 연령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고 있다.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도 젊은 연령층은 나이든 연령층에 비해 동거에 대해 더 포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동거라는 가족가치에 있어서도 한국만이 연령에 따른 가족가치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 이혼에 관한 가치의 연령별 차이

이혼에 관한 태도에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다음 <그림 7>을 통해 살펴보자.



<그림 7> 이혼에 관한 가치의 연령별 차이

이혼에 대한 연령별 차이는 국가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무엇보다도 연령별로 결혼 및 동거에 대한 태도와 이혼에 대한 태도가 매우 이질적이다. 결혼이나 동거에 대해서는 젊은 층이 탈전통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혼에 관한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젊은 층이 오히려 나이든 층보다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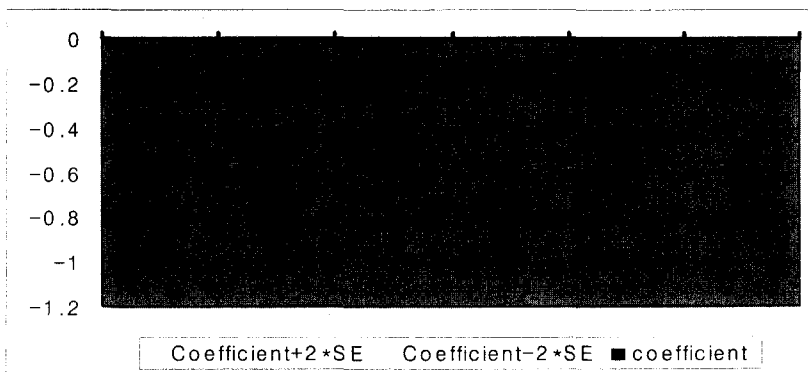
미국은 젊은 층이 나이든 층보다 부부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이혼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라는데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스웨덴이나 폴랜드의 경우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젊은 층이 나이든 층보다 더 이혼이 부부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라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나 스웨덴도 회귀계수로만 보면 젊은 층이 나이든 층보다 더 보수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95% 신뢰구간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본, 미국, 스페인, 스웨덴, 폴랜드 등 다른 국가에서는 모두 젊은 층이 나이든 층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젊은 층이 나이든 층보다 이혼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부부사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이혼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나이든 층보다 젊은 층에서 더 많은 것이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혼에 관한 가치관은 분석 대상국에게서 공통적으로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일반화하기 힘들다. 그러나 한국은 이혼에 관한 태도에 있어서도 결혼 및 동거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젊은 층이 나이든 층보다 더 탈전통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가족내 성역할 관한 가치의 연령별 차이

마지막으로 가족내 성역할에 대한 태도에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다음 <그림 8>을 보면서 살펴보자.



<그림 8> 가족내 성역할에 관한 가치의 연령별 차이

위의 그림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분석 대상인 6개국 모두에서 젊은 연령층은 나이든 연령층에 비해 전통적인 성역할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페인, 한국, 일본 등 가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전통적인 가족내 성역할에 관해 젊은 층은 나이든 층보다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유럽국가인 스웨덴이나 동유럽국가인 폴란드에서도 젊은층은 나이든 층보다 가족내 성역할에 대해서 탈전통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만 연령별로 가족내 성역할에 관한 가족가치에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 소절에서 가족가치에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 결혼, 동거 및 가족내 성역할에 관한 가족가치의 측면에서 한국, 일본, 미국, 스페인, 스웨덴 및 폴란드에서 모두 젊은 층은 나이든 층보다 더 탈전통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이혼에 관한 태도에서는 한국에서만 젊은 층이 나이든 층보다 이혼에 대해 탈전통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다른 국가에서는 젊은 층이 나이든 층보다 오히려 이혼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본이나 스웨덴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아시아, 미국 및 여러 유럽 사회 모두 가족가치에 관한 연령별 차이가 존재하는데 젊은 층이 나이든 층보다 더 탈전통적인 가족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VI. 한국에서 가족가치의 양극화?

이제 가족가치가 한국에서 양극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국제비교를 통해 검증해보려고 한다. 먼저 결혼에 관한 가치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1. 결혼에 관한 가치의 양극화 검증

앞에서 이미 설명한대로 가치의 양극화 여부를 이 연구에서는 kurtosis 값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다음 <표 1>은 결혼에 관한 가치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여섯 나라의 5점 척도별 분포, 분산 그리고 kurtosis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결혼에 관한 가치의 비율분포, 분산 및 kurtosis

국가	매우 반대	반대	그저 그렇다	찬성	매우 찬성	분산	Kurtosis
한국	2.2	12.6	26.8	39.9	18.6	1.00	-0.38
일본	25.3	5.0	34.2	15.5	20.1	1.98	-1.13
미국	9.1	17.4	32.5	24.1	16.9	1.39	-0.78
스페인	12.7	44.3	18.3	21.2	3.6	1.12	0.46
스웨덴	22.8	21.5	40.0	12.0	3.7	1.15	-0.67
폴란드	2.2	19.0	27.1	35.5	15.2	1.07	-0.75

표를 보면 결혼에 대한 5점 척도 진술에 대해 각 국별로 응답의 경향이 매우 편이함을 알 수 있다. 이 표를 보고 가치가 양극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판별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kurtosis 값을 통해 양극화 여부를 판단해보면 결혼에 관한 가치관에 있어서는 일본이 가장 양극화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율 분포를 보아도 일본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진술에 ‘매우 반대’를 선택한 비율이 25.3%이다. 반면에 ‘그저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은 34.2%로 또 다른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일본 다음으로 kurtosis 값이 낮은 국가는 미국과 폴란드이다. 스웨덴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kurtosis 값이 -0.38로 6개국 중 스페인 다음으로 kurtosis 값이 작은 국가이다. 스페인은 응답자의 44.3%가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데 반대하고 있는 등 응답의 양극화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에 관한 가치관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치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오히려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결혼에 관한 가치관의 양극화가 가장 심함을 알 수 있다.

2. 동거에 관한 가치의 양극화 검증

이번에는 동거에 대한 태도의 양극화 현상을 검증해보자.

〈표 2〉 동거에 관한 가치의 비율분포, 분산 및 kurtosis

국가	매우 반대	반대	그저 그렇다	찬성	매우 찬성	분산	Kurtosis
한국	29.9	31.9	18.0	17.0	3.2	1.34	-0.82
일본	29.5	9.3	18.7	16.3	26.2	2.45	-1.50
미국	17.4	18.8	17.3	30.2	16.3	1.85	-1.23
스페인	1.6	13.5	8.7	60.9	15.4	0.84	0.53
스웨덴	2.4	4.1	6.7	44.6	42.3	0.76	2.83
폴란드	5.3	17.8	16.4	48.2	12.3	1.14	-0.37

동거에 관한 태도의 양극화 여부를 kurtosis 값으로 판단해보면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가치의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kurtosis 값은 -1.5로 상당히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은 미국으로 kurtosis 값이 -1.23이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 다음으로 동거에 관한 태도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스웨덴의 동거에 대한 kurtosis 값은 2.83으로 한쪽으로 태도가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율분포를 보면 스웨덴의 경우 찬성 44.6%, 매우 찬성 42.3%로 응답자의 87%가 혼전 동거에 찬성하는 태도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거에 관한 태도의 양극화 검증에서도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태도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혼에 관한 가치의 양극화 검증

이번에는 이혼에 대한 태도의 양극화 현상을 살펴보자.

〈표 3〉 이혼에 관한 가치의 비율분포, 분산 및 kurtosis

국가	매우 반대	반대	그저 그렇다	찬성	매우 찬성	분산	Kurtosis
한국	12.4	29.0	21.5	26.6	10.6	1.47	-1.04
일본	24.2	11.9	30.1	15.9	17.9	1.95	-1.18
미국	10.4	26.3	20.3	29.4	13.6	1.53	-1.08
스페인	1.8	9.4	7.5	59.5	21.9	0.82	1.25
스웨덴	5.7	11.1	28.6	41.1	13.4	1.06	-0.04
폴란드	3.6	15.4	17.1	48.1	15.8	1.09	-0.34

이혼에 관한 태도의 kurtosis 값이 가장 낮은 사회도 역시 일본이다. 일본의 이혼에 대한 태도의 kurtosis 값은 -1.18로 가장 낮다. 그 다음이 미국으로 -1.08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 이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결혼이나 동거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태도가 비교적 나뉘어져 가는 현상이 있지 않은가 의심될 정도로 미국과 비슷한 kurtosis 값인 -1.04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스페인은 kurtosis 값이 1.25로 이혼에 대한 태도에 한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가는 경향이 큼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이나 폴랜드의 경우 kurtosis의 값이 음의 값이만 0보다 큰 차이가 없어 이혼에 대한 태도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혼에 관한 태도에서도 한국은 아직 일본에 비해서 가치가 양극화된 사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4. 가족내 성역할에 관한 가치의 양극화 검증

마지막으로 가족내 성역할에 관한 가치가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국제비교결과를 통해 살펴보자.

〈표 4〉 가족내 성역할에 관한 가치의 비율분포, 분산 및 kurtosis

국가	매우 반대	반대	그저 그렇다	찬성	매우 찬성	분산	Kurtosis
한국	11.0	31.4	23.1	23.9	10.6	1.41	-0.98
일본	37.0	11.6	20.6	16.2	14.7	2.16	-1.33
미국	52.6		23.9	14.9	8.7	2.07	-1.23
스페인	23.9	42.5	8.9	20.1	4.6	1.40	-0.69
스웨덴	46.5	31.2	14.7	6.1	1.5	0.94	0.72
폴랜드	3.9	31.2	19.3	28.1	17.6	1.38	-1.20

가족내 성역할에 관해서도 한 사회내에서 가치가 가장 양극화되고 있는 사회는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 가족내 성역할에 관한 태도 분포의 kurtosis 값이 -1.33으로 가장 낮다. 그 다음은 미국으로 -1.23이다. 그 다음은 폴랜드로 미국과 비슷한 -1.20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폴랜드보다 낮은 -0.98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은 kurtosis 값이 0.72로 응답이 비교적 몰려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가족내 성역할에 관한 태도의 분포를 kurtosis 값을 구해 비교해본 결

과 한국보다 가치관이 더 양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치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별로 우려하는 듯이 보이지 않은 일본은 오히려 한국에 비해 가족가치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더마지오는 미국 사회 내에서는 가치의 양극화 현상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분석했었는데, 결혼, 동거, 이혼, 가족내 성역할 등의 가치관에 관한 한국 사회는 미국 사회보다 오히려 가치관의 양극화 현상이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비록 가족가치에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고 젊은 층이 나이든 층보다 더 탈전통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국 사회에서 가족가치가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대립, 갈등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Ⅶ. 결론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에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어 왔고, 지금도 급격한 변동의 와중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변동은 가치관의 변동에서도 심각하다고 알려져 왔다. 특히 지난 2002년 대선 및 2004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사이에 가치관 차이가 심하고, 이러한 가치관 차이가 대선 및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인 인식처럼 세대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때로는 대선이나 총선의 결과가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말할 정도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고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여러 영역의 가치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다른 가치관처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 가족가치를 중심으로 세대간 가족가치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사회 내에서 가족가치의 양극화현상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에게서 공통 설문을 통해 조사된 자료를 한국의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가족가치면에서 대단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태도가 지배적임이 드러났다. 심지어는 경제수준이 질적으로 다른 필리핀과 결혼이나 동거에 대한 태도는 동일한 수준으로 매우 전통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에 대해서는 다른 아시아국가들과 마찬가지로의 수준이면서 남미,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 가족내

성역할에 관해서는 결혼, 동거, 이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전통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이 역시 다른 사회에 비해서는 전통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태도가 강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연령별 즉 세대별로는 태도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일단 연령별로 가족가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족가치에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혼을 제외한 다른 세 가지 가족가치에 있어서 젊은 층이 나이든 층보다 덜 전통적이고 덜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나라나 젊은 층은 나이든 층보다 더 진보적이고 탈전통적인 태도를 지닌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연령의 차이가 반영되어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사이에 존재하는 가족가치의 차이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가족가치의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을까? 이 역시 한국, 일본, 미국,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 등 다양한 각국의 사례를 함께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가족가치가 특별히 양극화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오히려 한국보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가족가치가 분석 대상 6개국 가운데에서는 가장 양극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가족에 관한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태도를 지닌 사회에서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총선을 치르면서 언론과 방송은 한국 사회에서 세대간에 가치관의 갈등이 심하고, 이러한 갈등이 결국 대선과 총선 결과를 이루어낸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고 보도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세대간 가치관 갈등이 매우 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양,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한국 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인 것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보도는 대부분 과학적인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재생산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치관의 한 분야인 가족가치를 중심으로 세대간 가치의 양극화 현상을 검증한 결과 적어도 가족가치에 관한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수적인 사회이고, 세대간 가치의 갈등도 이웃 일본보다도 더 작은 사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생각만큼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한국 사회에서 세대간의 가치전승(intergenerational value transmission)이 여전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는 세대간 가치관의 갈등을 억제해주는 주요 기제로 역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해서는 다른 논문을 통해 좀더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참고문헌

- 어수영(1997), <가치변화와 삶과 정치-한국, 일본, 미국, 멕시코 4개국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은기수(1999), “동서양 탈물질적 가치관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 (2003), “가족가치관”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조사 보고서. 여성부 한국가족조사 프로젝트 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2004), “한국인의 가족가치: 세계 5개국 비교연구”, <정신문화연구> 27(3): 137-182.
- _____ · 노희정 · 하현애(2001), “안락사 · 낙태 · 자살과 종교: 세계 5개국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
- 이혜정 · 은기수(2001), “종교적 배타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
- Caldwell, John and Thomas Schindlmayr (2003), “Reply to the Discussion of Our Paper 'Explanations of the Fertility Crisis in Modern Societies: A Search for Commonalities'” *Population Studies*, 58(1): 93-94.
- Coontz, Stephanie (1992), *The Way We Never Were: American Families and the Nostalgia Trap*. New York: Basic Books.
- Degler, Karl (1980), *At Odds: Women and the Family in America from the Revolution to the Pres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iMaggio, Paul, John Evans, and Bethany Bryson (1996), “Have Americans' Social Attitudes Become More Polariz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3): 690-755.
- Furstenberg, Jr. Frank F., J. Brooks-Gunn and S. Philip Morgan (1987), *Adolescent Mothers in Later Lif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dscheider, Francis and Linda J. Waite (1991), *New Families, No Famil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chschild, Arlie (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Avon Books.
- Hunter, James D. (1991), *Culture Wars: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

- New York: Basic Books.
-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and Wayne E. Baker (2000),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1): 19-51.
- Loftus, Jeni (2001), "America's Liberalization in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1973 to 1998"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5): 762-782.
- Popenoe, David (1988), *Disturbing the Nest: Family Change and Decline in Modern Societies*. New York: Aldine de Gruyter.
- Schwartz, Pepper (1994), *Love Between Equals: How Peer Marriage Really Works*. New York: Free Press.
- Skolnick, Arlene S. (1991), *Embattled Paradise: The American Family in an Age of Uncertainty*. New York: Basic Books.
- _____. Jerome H. Skolnick (Eds.) (1997), *Family in Transition*. Ninth Edition. New York: Longman.
- Stacey, Judith (1990), *Brave New Families: Stories of Domestic Upheaval in Late Twentieth Century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 _____ (1996), *In the Name of the Family: Rethinking Family Values in the Postmodern Age*. Boston: Beacon Press.
- Surkin, Johan and Ron Lesthaeghe, "Values Orientations and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SDT) in Northern, Western and Southern Europe: An Update"
- Thorne, Barrie (1992), *Rethinking the Family: Some Feminist Questions*.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Waite, Linda J. (Ed.) (2000), *The Ties That Bind: Perspectives on Marriage and Cohabitation*. New York: Aldine de Gruyter.
- Wolfe, Alan (1998), *One Nation After All. What Middle-Class Americans Really Think About*. New York: Viking